영혼을 하나님께 팔려는 자들

(갈5:1~12)

1.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7. 너희가 달음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8.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9.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10.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11.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12.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영혼을 하나님께 팔려는 자들>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영혼을 판다고 말을 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또 스테반 집사님도 순교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을 연상할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전혀 다른 의미의 말입니다.
영혼을 하나님께 팔게 되는 경우에, 또 팔려고 하는 그런 경우에 하나님은 영혼을 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는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것보다 훨씬 더 아주 심오한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훨씬 더 모독적으로 경멸하는 그러한 악행입니다.
근데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냐 하면, 영혼을 하나님께 팔려고 하면서,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넘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일어나는 일보다도 더 지독한 악행을 행하게 되는 경

우가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영혼을 판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통해서, 너무나 인류에게 회자되어지는 이야기가 돼 버렸습니다.
주인공 파우스트 박사가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에게 영혼을 놓고 거래를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본적으로 영혼을 판다고 하는 내용의 틀은, 괴테의 창작이라기보다는 16세기에 독일에서 유행하고 있던 파우스트 박사의 전서를 토대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이 전설의 내용이 '요하네스 파우스트 박사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으로 출판이 되었어요.
그 속에 들어 있는 전설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 마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있는 파우스트 박사가 그 마술의 심오한 경지에 들어가고 싶은데, 이 세상에서 노출되고 있는 알려져 있는 마술의 단계로서는 도저히 그런 심오한 가르침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악마를 소환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악마가 나왔어요.
그 악마의 이름이 바로 메피스토펠레스입니다.
그래서 메피스토펠레스에게 마법의 신비에 경지에 내가 도달하고 싶은데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 악마가 나는 루시퍼라는 대장 악마의 지위 하에 있는 악마라서 그에게 허락을 받아야 된다 해 갖고, 루시퍼에게 허락을 받아 갖고 와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24년 동안에 악마의 힘을 빌려줍니다.
그 대신에 영혼은 악마의 대장인 루시퍼에게 바치라고 하는 계약을 작성하게 되고, 이러한 영혼을 파는 이 내용의 틀이 괴테에게 옮겨 오면서, 이 괴테에서의 파우스트 박사는 마법을 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참 의미를 찾기 위하여, 이 세상의 온갖 학문을 두루 섭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의미를 찾지 못해서 좌절하고 있을 때, 이 악마가 파우스트 박사에게 나타나서 거래를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환락을 다 경험하게 해 주겠다.
환락을 경험하려니까, 나이가 늙어 가지고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20세로 바꾸어 줍니다, 파우스트 박사를.
20세의 젊은 나이로 바꿔 줘서, 인간의 모든 쾌락과 환락을 다 경험하게 하면서, '네가 원하는 인생의 의미를 찾게 도와 줄 테니 단 한 가지 조건만 동의를 해라. 그렇게 내 힘을 빌려 줘서 인생의 정말 좋은 모든 순간들을,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 다 경험하게 되는 어느 순간에, 너무 좋아가지고 이 순간이여 지나가지 말고 멈춰라, 너~무 아름답다! 라고 외치는 순간이 오게 되면, 네 영혼을 내가 딱 잡아가지고 지옥으로 데려 가겠다.'

이러한 거래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공통적인 점은, 하여간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을 자기 마음에서 갖지 않습니까? 인생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도 그 뜻이에요.
인생은 무엇을 이룰 때 만족하고 참으로 기쁘겠느냐, 이게 인생의 의미를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간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 영혼을 담보 잡혀서 악마와 거래를 하는 것, 이게 영혼을 판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영혼을 파는 일이 사실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파우스트에도 지옥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하지마는, 꼭 이렇게 종교적인 맥락에서 얘기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영혼을 판다는 얘기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생명을 판다는 얘기로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의미가 통할 거예요
근데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뜻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가수의 생명은 목소리이다, 교수의 생명은 연구다, 아이고! 저 축구선수 말이야, 이제 다리를 못 쓰게 됐으니 축구선수로서의 생명이 끝난 것이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여러분.
가수를 가수답게 해주는 것, 축구선수를 축구선수답게 해주는 것, 교수를 교수답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교수가, 교수를 교수답게 해주는 생명인 연구에 매진하지 않고 보직에 마음을 두고 높아지려고 한다, 생명을 잃은 것인데, 이 경우가 바로 영혼을 판 것이라는 겁니다.
가수가, 노래에 빠져서 노래 부르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되는데, 맨~ 돈 버는 것만 좋아합니다.
생명을 잃은 것이고 영혼을 판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핵심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자!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왜 종의 멍에를 다시 메느냐?
할례를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게 될 경우에, 주님의 복음이 무효화 돼버리고, 자유가 없어져 버리고, 너희들은 종의 자리로 처하게 된다.
이게 바로 영혼을 파는 행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태도가 영혼을 파는 것이고 영혼을 판 결과가 종의 멍에

를 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의 멍에와 반대되는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11절에 십자가의 걸림돌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두 단어에 집중하면 본문에서 의도하는 바를 우리가 정확하게 잡아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종의 멍에와 십자가의 걸림돌.
종의 멍에는 왜 지게 된다고요? 영혼을 팔았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인들이 종의 멍에를 매게 되는 경우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는 건데, 이 율법주의가 영혼을 팔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가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혼을 파는 자들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영혼을 파는 것이 생명을 파는 것과 같다 그러면 인간이 영혼을 판다, 인간이 생명을 파는 것인데, 인간의 생명이 뭡니까?
인간을 인간답게 해준다는 의미에서의 생명, 인간다움의 핵심가치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다움의 핵심가치는 창조주 하나님과 마음을 통해서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연합의 가능성, 이게 바로 인간의 인간다움이에요.
눈에 보이는 개와 다르고 돼지와 다르고 소와 다른 것이, 그리고 나무와 다르고 바다와 다르고 구름과 다르고 산과 다른 것이 뭐냐 하면, 똑같은 피조물인데도 인간의 인간다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인간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마음으로 나를 창조한 창조주와 인격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그 분을 좋아할 수 있고 좋아하는 것이 허락된다는 거예요.
나무는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 있어요, 창조주의 섭리가 들어 있어요.
산에도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섭리가 들어 있지만, 인격적으로 나무는 하나님을 좋아하도록 허락 받지를 못했습니다.
개도 하나님을 좋아하도록 허락 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인간만큼은 하나님을 좋아할 수 있도록, 이게 인격적이라는 말이에요, 좋아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게 인간다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 안으로 하나 될 수 있을 때 인간이 인간다운 거예요.
원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인간다움을 거기다가 역점을 두고 만드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당신이 들어가실 자리로서 빈 공간을 만들어 내신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니까 인간이 바빠졌어요.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나오는 파우스트 박사는 모~든 학문을 다 연구 했는데도 인생의 의미를 찾지를 못하게 되자 다급해진 겁니다.
이 빈 마음을 이제 뭐로 채우나? 악마가 도와주는 겁니다.
봐라! 돈을 한 번 봐, 저거 돈 기가 막힌 거거든, 네가 돈을 마음에 담으면 내가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줄게.
영혼을 팔아넘기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돈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악마가 가르쳐 줍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해!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을 지켜봐, 늘~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 있으면 메모로 적어놔, 그리고 꿈을 가져, 나는 큰~ 부자가 된다는 긍정의 마인드를 갖고 꿈을 가져.
이게 다 율법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혼을 팔아버린 결과입니다, 그래서 악마의 가르침을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 잘 버느냐, 이게 다 악마의 가르침들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인간다운 인간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면, 돈이라는 것은 내가 벌려고 원칙을 따르고 방법을 추구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갖고 계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러 오시기도 하시고 돈을 또 내보내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아니, 돈을 번다는 생각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악마에게 유혹되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돈을 집어넣었어요, 여기서 영혼을 팔아버린 겁니다.
교수가, 연구하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보직이 높아지는 것에 마음을 두고, 기업과 결탁을 해 가지고 돈 많이 버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모시는데 역점을 둬야 될 인간이, 그래야 인간다울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은 등을 돌리고 돈을 마음에 집어넣은 것 자체가, 아니면 내가 자식을 잘 길러서 행복해야지, 이거 영혼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영혼을 팔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 그러니까, 아~주 저주받은 몇 몇 소수의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넘긴 상태에서, 영혼을 팔아넘기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율법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경우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그 빈 마음에 좋아해서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 따로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대제사장들이 기득권을 갖고, 돈을 챙기고 명예를 챙기고 권력을 챙깁니다.
그것들을 챙겨 놓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혼을 파는 거예요.
이건 어떤 경우냐 하면, 마음에 하나님을 들여놔야 그것이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대신에 돈을 들여놨습니다, 하나님은 내쫓겼어요.
근데 하나님 대신에 들어온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힘을 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은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마음에 들어 하심을 틈타서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건희 씨의 돈을 훔치려고 하면서, 이 건희 씨에게 가서 '내가 당신의 돈을 훔칠 테니까 당신의 재벌총수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나에게 빌려주시오'
이런 것과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아니, 더욱 더 모독적인 거예요, 더욱 더.
이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주의로 빠져갈 때 어떻게 됩니까?
종의 멍에를 메는 겁니다.
계속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모셨으면,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생각이 있으신 분입니다.
돈처럼 그냥 아니면 어린 자식처럼 우리의 행동의 대상만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행동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동에 우리가 얹혀서 가는데, 돈을 집어넣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을 실제로 손에 쥐려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멍에가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식을 집어넣습니다.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려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멍에가 주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고 에덴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에덴이 있겠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바빠 죽겠는데, 마음속에 집어넣은 것들 때문에.
영혼을 팔아버린 결과 종의 멍에를 매게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뭡니까?
영혼을 하나님께 팔아 버려서, 하나님 말고 마음속에 담고 있는 이 죄악 된 현실을,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현실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사업 잘되게 해 달라고, 뭐 잘되게 해 달라고, 자녀, 건강, 가정, 승진,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악마에게 영혼을 팔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모독적이고 훨씬 더 지독한 악행이라 이겁니다.
이 건희 씨의 힘을 빌어서 이 건희 씨의 자리와 이 건희 씨의 재산을 훔치려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
얼마나 이 건희 씨를 우습게 알았으면 면상에다 대놓고, 내가 당신 것을 다 훔쳐갈 텐데 당신이 도와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인 마음에 돈을 집어넣은 다음에,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쫓아낸 하나님께 가가지고 도와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혼을 파는 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좋다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 이 율법주의자와 통하는 자들이거든요, 이들이 하나님께 영혼을 파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종의 멍에와 대비되는 십자가의 걸림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의 걸림돌이 있어야 된다 이거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할례를 행하라 그러고, 율법을 지키라고 너희들에게 말했다면, 그 십자가의 걸림돌을 제거하면서 십자가 복음의 의미를 무효화시켰을 것이다'
십자가의 걸림돌이 뭡니까? 뭐가 걸립니까? 십자가가.
인간으로서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까지는 어쩔 수없이, 좋~은 외제차를 타고 쓰윽 앞을 지나가면, '아이고~ 나도 저런 차 한 번 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 예수님과 연합하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외제차를 보고 갖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의 손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것, 나에게도 좋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좋게 느껴질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손에 못을 박아 버리고, 발에 못을 박아 버리고, 좋다는 것을 탐하고 또 아니면 추구하기 위해 머리를 굴리려고 그럴 때마다, 가시면류관을 생각하면서 생각을 멈춰 버립니다, 걸림돌이에요.
도대체가 무엇을 마음대로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기억하고 있는 한.
자식을 위해서 뭘 좀 염려하고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이끌어보려고 그

러다가, 십자가를 딱 생각하면 자식에 대해서 손 떼는 십자가에 못 박힘이 일어나고, 발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자식에 대한 소원이 일어나는 내 옆구리 이 배에다 창을, 창이 꽂혀야 되고, 자식을 생각하는 이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써야 되니까, 십자가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나도 함께 쥐려고 할 때마다 걸림돌이 됩니다.

제가 미군 부대에 있을 때, 의무반을 갔다가 자대에 부관중대로 돌아오는데 철조망이 있어요.
철조망 안쪽으로 야구장이 있었거든요?
풀이 있고 철조망이 있는데, 철조망이라는 게 뭐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시퍼런 풀밭 위에 시퍼런 종이가 보여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봤더니, 100불짜리 지폐, 100달러짜리.
근데 철조망이 있어서 집을 수가 없는데 저쪽에서 사람이 오는 거예요.
영락없이 딱 보고 집어 가더라고요.
날 보면서 100불짜리를 집고 쓰윽 웃으면서 가요.
철조망 때문에 100불짜리를 집을 수가 없었어요.
아~! 정말 아주 안타까워 발을 동동 굴리는 그런 심정으로 그냥 그림의 떡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의 걸림돌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믿게 되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정말로 철조망 바깥의 100불짜리 지폐, 임자가 없는 100불짜리 지폐에요.
그런데 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손에 못 박히고 발에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박혀 있으니까.
이게 십자가의 걸림돌이라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가 이렇게 걸림돌만 되느냐 하는 얘기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제 못 가져요.
영혼을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좋다는 걸 덥석 집어서 마음에 집어넣으면, 하나님은 쫓겨나는 거고 내가 인간됨을 상실하는 거니까 영혼을 팔아버리는 건데, 그 다음부터는 마음에 들면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종의 멍에를 짊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십자가 때문에 그 좋은 걸 마음으로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걸림돌이 돼가지고.
이렇게 걸림돌이 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십자가에서 매달리는 게 믿음 아닙니까?

내가 죽었다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왜 내가 죽은 거예요?
근데 내가 죽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내가 죽은 자이니까, 정말 철조망 바깥에 100불짜리를 집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식, 요렇게만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사랑으로 역사한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오십니다, 그건 약속이에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거라고 예수님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요.
오늘 본문 읽어 보시면 성령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얘기에요.
성령께서 오시게 돼요.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갑자기 철조망 바깥의 돈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내 앞에 있는 그 돈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집지 못하고 있는데, 그 집지 못해서 안타까웠던 그 모든 좋은 것보다 더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느껴지면서, 이게 웬일입니까?
그동안 좋다고 여겼던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하나님이 좋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십자가의 걸림돌에 걸려 가지고 세상에서 좋다는 걸 못 갖고 마음대로 소원도 못한 채 꼼짝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느끼게 해 주시고 갖게 해주시니까 이게 웬일?
세상에서 좋다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느껴지면서, 세상에서 좋다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느껴지자마자,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좋다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기 전에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 싶으면서 슬쩍 하나님의 뜻이라고 뒤집어 씌워버리니까 구분이 안 되는데, 하나

님이 들어오고 나서 세상에 좋다는 게 아무것도 좋은 게 없는 상태가 되자마자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이게 자유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서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열매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뭘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하나님 한 분 십자가의 걸림돌에 걸려서 껄떡껄떡하고 있다가, 성령께서 도와 주셔서 하나님을 갖게 되고 나니까 원하는 게 없는 사람이 된 거에요.
자유 아닙니까, 이게?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루는 것에 대해서도 매이질 않습니다, 이룬 업적에 대해서도.
이게 자유 아닙니까?
이러한 자유를 얻고 살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영혼을 하나님께 팔려는 행동을 하지 마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나님께 영혼을 팔려는 악마에게 파는 것보다 더 지독한 악행을 범하면서도 우리는 믿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멈추게 하시고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메지 않게 하시며, 그리스도가 허락하시는 자유 안에서 마음껏 자유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